의결정족수 없이 유효투표 과반 결정…반대파 "투표 무산"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시행세칙과 전망

신임 연계 安대표 결과 낙관
투표거부운동본부 출범한
통합반대파 "소송도 불사 "

국민의당이 이번 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에 대한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 행보가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는 승부수를 던진 안 대표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통합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 및 저지운동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같은 당내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당 안팎에선 국민의당이 결국 분당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친안(친안철수)계인 이동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고 공식 공고했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이튿날인 오는 31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통합 반대파에서 당헌·당규상 전당원투표의 참여율이 3분의 1을 넘겨야만 한다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들이대며 제동을 걸었지만, 당 선관위는 당무위 의결로 실시되는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투표가 이뤄지면 '통합 찬성' 쪽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통합 반대파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바른정당 측에서도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신설 합당'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 내년 2월께를 통합 완료 시점으로 본다고 언급하는 등 통합 분위기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만일 투표에서 통합으로 결론나면 안 대표 측은 1월부터 통합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할 교섭창구를 이언주·이태규 의원 2명에게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최종 합당이 성사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박지원·천정배·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이끄는 '평화개혁연대' 소속 의원들과 중립파로 분류되던 박주선 국회부의장,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 등 10명은 지난 22일 '보수야합 참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를 만들어 투표를 무산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보이콧을 통해 이번 투표율을 당규 25조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3분의 1' 아래로 떨어뜨린 뒤 투표 원천무효를 주장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전당원투표 이후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통합 안건을 저지하려면 투표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내려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통합 반대파는 법원에 전당원투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한다.

이처럼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이날 서로 맹비난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반대파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의당 '나쁜투표'의 여론조사 전화를 끊어버리라"면서 "그것이 국민의당을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호남 중진을 비롯해 의원 10명이 참여한 투표거부운동본부는 오는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보수적폐야합 반대, 국민의당 사수대회'를 열어 반대세력을 규합하고 여론몰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안 대표 측의 움직임도 거침이 없다. 통합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25일 당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세몰이 경쟁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대철(왼쪽 세번째) 등 국민의당 고문단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박지원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동영 의원 등을 불러 전날 당무위원회 및 전당원 투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11명 똘똘 뭉쳤다는데…1~2명 탈당설 솔솔

유승민 대표 연일 설득 작업
남경필 지사 행보도 주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당대당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향으로 흐르자 이에 실망한 일부 의원이 결국 한국당 복당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대표는 최근 의원들과 수차례 식사를 하며 '행동통일'을 강조한 데 이어 몇몇 의원에게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도 "바른정당의 정체성은 보수다. 정체성을 훼손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 역시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애초 추가 탈당설이 거론되던 5~6명 의원 가운데 대부분은 한 달 새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은 분위기다. 한국당 복당설이 거론되는 의원 숫자도 이제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은 11명이 전원 똘똘 뭉친 상태"라며 "추가 탈당 사태는 절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김세연(3선·부산 금정구) 의원과 이학재(3선·인천 서구갑) 의원의 한국당 복귀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두 사람이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원하는 데다 한국당 복당을 압박하는 '지역 민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원외 인사지만 당내 영향력이 큰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은 정치권 개편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 지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남 지사는 줄기차게 한국당과의 선(先)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애초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복당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한국당이 최근 입장을 바꿔 다시 영입 모드에 나선 것도 변수다. 홍준표 대표가 "샛문은 열려 있다"며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추가 복당을 위한 길을 터준 뒤 당 지도부는 바른정당 잔류파에 대한 '러브콜'의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갈등 중재자' 나선 손학규 역할 어디까지?

귀국후 안철수·박지원 등
찬반 인사 만나 의견 수렴
김종인은 "나서지 않겠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극한 내홍에 휩싸여 '합의 이혼'이라는 분당설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역할론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통합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의 대표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서 '구원투수' 등판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이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손 고문은 지난 21일 귀국 일성으로 '개혁적인 중도통합'을 강조하면서 "내가 할 소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한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손 고문은 귀국 후 안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통합 찬반 양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 고문은 귀국 당일 박 전 대표를 만났고, 이튿날인 22일 그를 한 차례 더 만났다. 또 22일에는 이상돈 의원과 조찬, 유성엽 의원과 오찬, 안 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엔 정동영 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등 통합에 부정적인 인사들을 더 만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손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손 고문이 통합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고문이 호남 의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만큼 극심한 당내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의 산파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통합작업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도 일부에서 거론되지만, 김 전 대표는 이번 통합국면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고문의 역할론 역시 안 대표 측 기대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합 찬·반 양측 간의 갈등이 봉합할 수 있는 국면을 지나 이미 막판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손 전 고문이 중재자로 적극 나서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손 전 고문과 회동한 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은 '양측 갈등이 어떻게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느냐'고 물으며 주로 듣기만 하셨다. 손 고문이 갈등의 중재자 또는 통합 정당의 산파역을 맡을 것이란 얘기를 일각에서 하는데 이는 안철수 측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이 의원은 "이미 호남지역에서 안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상황인데 어떻게 통합 정당의 산파역할을 하고, 양측 갈등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재자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나아가 갈등 중재를 위해선 양보가 필요한데, 안 대표가 설득이 되겠느냐"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65 since 1952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